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4 Issue | Vol. 7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새로운 세금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 — page 1
- 국세청, 서류 부족 시 부가가치세 환급 위험 등급 상승 경고 — page 2
- 필리핀 경제, 6% 이상의 성장세 지속 전망 — page 2-3
- 경쟁 당국, 상글리 공항 합작 투자 승인 — page 3-4
- IMF, 2024년 및 2025년 세계 성장 둔화 전망 — page 4-5
- 필리핀, 무역 지속 가능성 순위 하락 — page 6-7

UPCOMING EVENT

- [Nov 18, 2024] KCCP Christmas Party 2024 —page 7
- [Nov 28, 2024] 19th Joint Foreign Chambers Networking Night —page 8

'새로운 세금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

October 21, 2024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미국에 본사를 둔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정부가 "보다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세수 징수 개선을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이 국가의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GlobalSource Partners는 보고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같은 "보다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통해 마닐라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4.3조 페소의 세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재무부(DOF)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수 징수 개선을 통해 정부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GlobalSource Partners는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 제한적인 성과만을 가져왔고 재정 여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압박을 받으면서 정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 증가"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국내외 자본 시장에서 차입을 늘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거둔 수익은 2.993조 페소에 달했으며, 지출은 3.69조 페소로 재정 적자는 6970억 페소에 이르렀습니다.



This February 8, 2024, photo shows Finance Secretary Ralph G. Recto delivering his keynote speech during the 2024 Bureau of Internal Revenue National Tax Campaign Kick-off held at the Ph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Pasay City.

정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 의존도를 높였으며, 국내 채권 시장에서 1.53조 페소, 해외 자원에서 1210억 페소를 순차입으로 확보하여 기존 대출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정부의 현금 보유고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정부는 8월에 세 개의 트랜치로 구성된 미화 2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으며, 5월에는 두 개의 트랜치로 2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또한 5억 달러는 엔화 표시 증권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차입은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총 부채를 15.55조 페소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국가 GDP의 61%에 해당합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부채 상환액은 1.55조 페소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61조 페소보다 33.50% 증가했습니다.

"차입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필요성은 아마도 인프라 프로젝트와 사회 서비스 자금 조달, 그리고 일부 입법자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포크 배럴 프로젝트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GlobalSource Partners는 정부가 올해 6~7%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차입이 발생하고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024년 2분기에 6.3% 성장했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 범위인 6%에서 7% 내에 있습니다.

Image credits: [Nonoy Lacz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1/shrinking-fiscal-space-due-to-aversion-to-new-taxes/>

국세청, 서류 부족 시 부가가치세 환급 위험 등급 상승 경고

October 22,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BW FILE PHOTO

국세청(BIR)은 부가가치세(VAT) 환급 신청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해당 청구가 자동으로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회람에서 “증빙 서류의 완전성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NSD’ 또는 ‘증빙 서류 없음’(예: 일정표에 기재된 증빙 서류가 제출된 실제 문서에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으로 판정된 매출 및 매입은 불완전한 제출로 간주되지 않지만, 해당 매출 또는 매입의 근거 없는 부분은 위험 등급과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및 매입의 ‘NSD’가 총 매출 금액(판매 거래의 경우) 또는 총 청구 금액(구매 거래의 경우)의 최소 1%를 초과할 경우, 신청은 자동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100%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국법(RA) 제11976호 또는 세금 납부 용이법은 VAT 환급 청구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국세청(BIR)은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빈도, 청구인의 세금 준수 이력 및 기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VAT 환급 청구를 분류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은 리스크 레벨이 부여되기 전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BIR은 밝혔습니다.

“VAT 환급 청구의 리스크 레벨 결정은 신청서가 적절한 BIR 처리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구 금액, 적용 기간, 제출 빈도 등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RA 11976에 따라, 국세청은 처리 사무소가 청구 또는 신청을 수락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VAT 환급 청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 프로세스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요구 사항과 증빙 서류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 환급 청구의 리스크 레벨 결정; 중위험 및 고위험 청구의 처리 및 검증을 포함합니다.

저위험 청구는 완전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분류됩니다. 이 범주에 있는 청구인은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과 구매 및 매입세액에 대한 검증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IR은 10월 2일자 메모랜덤 주문에서 고위험 청구에는 2024년 4월 27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제출된 청구, 첫 번째 청구인에 의해 제출된 청구, 청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험으로 분류된 환급 청구는 매출 금액과 발행된 총 송장 또는 영수증의 50%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BIR은 지역 공급업체로부터 청구된 매입 VAT가 “찾을 수 없음”으로 식별되거나 가짜 거래 단속 프로그램에 의해 플래그가 설정된 경우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0/22/629966/bir-warns-document-deficiencies-will-raise-vat-refund-risk-category/](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0/22/629966/bir-warns-document-deficiencies-will-raise-vat-refund-risk-category/)

필리핀 경제, 6% 이상의 성장세 지속 전망

October 22, 2024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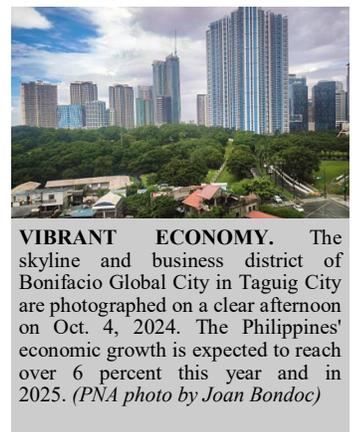
마닐라 - 필리핀 경제는 2024년과 2025년 동안 6%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경제 및 시장 전망에서 BPI의 수석 부사장 겸 수석 경제학자 에밀리오 네리 주니어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6.3%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리는 “필리핀 경제는 심각한 엘니뇨 현상과 파괴적인 태풍 같은 상당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반기에 6%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필리핀 경제는 강력한 소비 기반에 힘입어 지역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리는 2024년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3.2%로 완화되고, 2025년에는 2.8%로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3]



VIBRANT ECONOMY. The skyline and business district of Bonifacio Global City in Taguig City are photographed on a clear afternoon on Oct. 4, 2024. The Philippine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reach over 6 percent this year and in 2025. (PNA photo by Joan Bondoc)

필리핀 경제, 6% 이상의 성장세 지속 전망

[Cont. from page 2]

“식량 공급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가 지나가고 생산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 인하와 함께 쌀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선거 관련 지출이 경제 활동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MF 전망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 경제가 2029년에 6% 이상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이머징 및 개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의 2024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2029년에 6.3%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경제 확장은 부탄의 7.2%와 방글라데시 및 인도의 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필리핀 경제 성장률 전망은 각각 5.8%와 6.1%로 유지되었습니다.

IMF는 이메일 성명에서 2024년과 2025년의 성장은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뒷받침으로 하여 내수 수요의 증가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소비 성장률은 낮아진 식료품 가격과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의해 증가할 것이며, 투자 성장률은 지속적인 공공 투자 확대와 점진적인 차입 비용 감소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기적으로 6.3%의 성장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시행 가속화와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 요소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선진 경제에서의 긴축 통화정책 지속, 개혁 모멘텀이 정체되거나 개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민간 투자 증가의 저조 등이 포함됩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36103](https://www.pna.gov.ph/articles/1236103)

경쟁 당국, 상글리 공항 합작 투자 승인

October 22, 2024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필리핀 경쟁 위원회(PCC)는 월요일 카비테 주 정부와 카비텍스 홀딩스(Cavitex Holdings Inc.)와 상장된 하우스 오브 인베스트먼트(House of Investments Inc.)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110억 달러 규모의 상글리 포인트 국제공항(SPIA) 합작 투자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2023년 초에 내려졌으며, 하우스 오브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7월 23일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PCC 결의안 사본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PCC가 월요일에만 이 ruling을 발표한 이유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30일자 결정서 012-M-009/2023에서 위원회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젝트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상글리 포인트 국제공항 개발 컨소시엄의 창립을 승인했으며, 이 컨소시엄은 SPIA를 개발하고 소유하며 운영하고 관리 및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SPIA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혼잡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주식 파트너인 카비텍스 홀딩스와 하우스 오브 인베스트먼트 외에도 이 컨소시엄에는 매크로아시아(MacroAsia Corp.), 삼성물산(Samsung C&T Corp.), 뮌헨공항국제(Munich Airport International GmbH), 오브 아랍 & 파트너스 홍콩(Ove Arup & Partners Hongkong Ltd.)의 필리핀 지사가 지정 계약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건설 서비스 시장의 경쟁, 주요 플레이어 간의 관계, 그리고 중복 사업의 가능성 등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nt. page 4]

경쟁 당국, 상글리 공항 합작 투자 승인

[Cont. from page 3]

PCC는 건설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다수의 자격을 갖춘 계약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탄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다양한 선택지 덕분에 다른 옵션을 탐색할 수 있다"고 ruling에서 말했습니다.

PCC는 하우스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SPIA 프로젝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설 회사 EEI Corp.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EEI가 프로젝트 가치 기준으로 21.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EEI는 다른 회사들이 필요한 것을 얻거나 고객을 찾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PCC는 월요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공항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자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SPIA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들은 중복된 사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ven if the companies involved wanted to limit their suppliers' options, they would not have enough market power to do so," PCC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메가와이드 건설과 마카티 개발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함으로써 합작 투자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정에서 PCC는 SPIA가 건설 서비스가 필요한 공항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이며 "보다 넓은 건설 서비스 시장을 고려할 때 다른 건설 회사들이 상당한 고객 기반에 접근하는 것을 부정할 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비테 지방 정부는 2022년 9월 15일, 2021년 11월에 제출된 자발적 제안에 대해 어떠한 회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카비텍스-하우스 오브 인베스트먼트 주도의 컨소시엄에 프로젝트를 수여했습니다.

2020년 2월 매크로아시아와 중국교통건설이 수여받은 이전 계약은 요구된 제출물의 결함이 발견되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제공항 개발, 4킬로미터 연결 도로 건설, 철도 연결을 위한 시설, 완전 통합 물류 및 항공 지원 시설을 포함합니다.

컨소시엄은 첫 번째 활주로의 개발이 NAIA의 혼잡을 즉각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CC 결정에 따르면, 이 합작 투자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범위, 설계 및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실행입니다.

PPP 센터는 현재 SPIA 프로젝트를 건설 전 단계로 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최종 확정 전에 PCC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인베스트먼트 주가는 월요일 11센타(3.11%) 상승하여 주당 3.65페소로 마감했으며, 매크로아시아 주가도 3.0% 상승하여 주당 21센타로 7.21페소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 증권거래소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10/22/business/top-business/competition-watchdog-clears-sangley-airport-jv/1988415>

IMF, 2024년 및 2025년 세계 성장 둔화 전망

October 22, 2024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워싱턴, 미국 — 세계 성장률은 올해 3.2%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IMF가 화요일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수치 뒤에는 "중요한" 지역 및 부문별 변화가 숨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새로운 세계 경제 전망(WEO) 보고서에서 세계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어 올해 5.8%에 이를 것이며, 2025년에는 4.3%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에 큰 둔화나 세계적인 불황 없이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IMF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스가 보고서 발표 전에 AF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기본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025년에 중앙은행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이며, 신흥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nt. page 5]



A view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eadquarters building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0, 2024 ahead of the 2024 IMF/World Bank Annual Meetings. (Photo by Tierney CROSS / AFP)

IMF, 2024년 및 2025년 세계 성장 둔화 전망

[Cont. from page 4]

IMF의 세계 경제 전망(WEO) 보고서는 세계 성장률이 2029년까지 저조한 3.1%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까지의 성장 전망이 상대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IMF는 “그림이 단일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부문별 및 지역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O 발표는 IMF와 세계은행 연례 회의가 워싱턴에서 시작된 다음 날에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의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의 건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성장

보고서는 미국이 글로벌 성장의 엔진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유로 지역은 여전히 성장 속도가 느린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올해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에 예상된 2.9%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IMF의 지난 7월 예상치보다는 여전히 약간 나은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재정 정책이 “점진적으로 긴축되고 냉각된 노동 시장이 소비를 둔화시키면서” 2.2%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7월 예상치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구린샤스는 말하며, 강력한 생산성 증가와 이민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지 않고 목표치 내로 떨어지는 드문 성과인 소프트 랜딩을 “매우 가깝게”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성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낮으며, 올해 0.8%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1.2%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2024년 전망이 상향 조정된 반면, IMF는 독일의 성장 전망을 올해 0.2% 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0.5% 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약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하락하면서 내수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둔화된다

IMF에 따르면,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 0.3%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실질 임금 상승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서 1.1%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4.8%로 둔화된 후, 2025년에는 4.5%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와 낮은 소비자 신뢰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예상보다 소폭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IMF는 언급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인 중국의 “예상보다 나은” 순수출을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둔화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IMF는 올해 성장률을 7.0%로 예상하고, 이는 2023년의 8.2%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IMF는 팬데믹 동안 축적된 “억눌린 수요”가 소진됨에 따라, 인도의 성장률이 6.5%로 더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성장률이 올해 2.4%로 소폭 증가한 후, 2025년에는 석유 및 해상 운송 중단 of 일시적인 영향이 사라지면서 3.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성장률이 올해 3.6%로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025년에는 날씨 충격이 완화되고 공급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85981/imf-predicts-slightly-slower-global-growth-in-2024-and-2025>

필리핀, 무역 지속 가능성 순위 하락

October 23,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은 힌리히 재단과 국제 경영 개발 연구소(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무역 모범 사례에 참여하는 30개 경제국 중 13위로 하락했습니다.

힌리히-IMD 지속 가능한 무역 지수(STI)는 30개 경제국이 72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참여할 준비와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는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기둥으로 분류됩니다.

올해 뉴질랜드가 지수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영국과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국가는 러시아(30위), 파푸아뉴기니(29위), 파키스탄(28위)입니다.

필리핀은 점수가 지난해 61.4점에서 54.8점으로 떨어지면서 13위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필리핀은 2023년 조사에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 기둥과 사회 기둥 모두에서 19위로 하락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기둥에서 필리핀의 가장 잘 수행된 분야는 노동력 성장(4위), 관세 및 비관세 장벽(11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3위)입니다.

그러나 무역 비용(18위), 기술 인프라(21위), 소비자 물가 지수(22위)와 같은 분야에서는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사회 기둥에서 필리핀은 현대적 노예 위험에 처한 상품의 무역에 대한 입장(14위),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대응(2위), 노동 기준(12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IMD는 불평등(18위), 교육 수준(23위),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25위), 강제 또는 아동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25위)과 같은 분야에서는 성과가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올해 지수에서 환경 기둥에서 3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는 무역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측정합니다.



PHILIPPINES DROPS IN SUSTAINABLE TRADE INDEX

The Philippines inched down a notch to 13th out of 30 economies with a score of 54.77 out of 100 in the 2024 edition of the Sustainable Trade Index by Asia-based philanthropic organization Hinrich Foundation in partnership with academic institution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The index measures the readiness and capacity of economie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using 72 indicators under three pillars: economic, societal, and environmental.

2024 Sustainable Trade Index Scores of Select East and Southeast Asian Economies



Philippines' Profile (2024)

| Pillar | 2024 Rank (Out of 30) | Score (Out of 100) |
|----------------|-----------------------|--------------------|
| Overall | 13 | 54.77 |
| Environmental | 3 | 93.01 |
| Economic | 19 | 55.99 |
| Societal | 19 | 37.44 |

Top 10

| Overall Rank (Out of 30) | Economy | Overall Score (Out of 100) |
|--------------------------|----------------|----------------------------|
| 1 | New Zealand | 100.00 |
| 2 | United Kingdom | 97.69 |
| 3 | Australia | 87.37 |
| 4 | Singapore | 85.73 |
| 5 | Japan | 81.52 |
| 6 | South Korea | 81.38 |
| 7 | Hong Kong, SAR | 81.38 |
| 8 | Canada | 79.96 |
| 9 | Taiwan | 72.29 |
| 10 | United States | 72.16 |

Bottom 10

| Overall Rank (Out of 30) | Economy | Overall Score (Out of 100) |
|--------------------------|------------------|----------------------------|
| 30 | Russia | 0.00 |
| 29 | Papua New Guinea | 3.19 |
| 28 | Pakistan | 3.66 |
| 27 | Myanmar | 11.08 |
| 26 | Sri Lanka | 16.80 |
| 25 | Bangladesh | 21.28 |
| 24 | Brunei | 22.14 |
| 23 | India | 24.00 |
| 22 | Laos | 24.96 |
| 21 | Ecuador | 32.85 |

Philippines' Historical Ranks and Scores

| Year | Overall Rank | Overall Score (Out of 100) |
|------|--------------|----------------------------|
| 2016 | 13/20 | 52.00 |
| 2018 | 10/20 | 51.20 |
| 2020 | 8/20 | 55.90 |
| 2022 | 12/30 | 49.52 |
| 2023 | 12/30 | 61.39 |
| 2024 | 13/30 | 54.77 |

Note: Indicators were rescaled between 0 (worst) and 100 (best) and averaged to construct the three pillars.

Source: Hinrich Foundation and IMD's Sustainable Trade Index 2024 (<https://www.hinrichfoundation.com/research/wp/sustainable/sustainable-trade-index-2024/>)

BusinessWorld Research: Karis Kasarinlan Paolo D. Mendoza BusinessWorld Graphics: Bong R. Fortin

필리핀, 무역 지속 가능성 순위 하락

[Cont. from page 6]

“이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영국, 필리핀, 멕시코, 호주는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 협약에 대한 약속으로 구별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낮은 오염 수준을 유지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RE)원을 우선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환경 기동 아래 지표에서 무역에 대한 환경 기준(1위), 생태 발자국(5위), 재생 가능 에너지(6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림 파괴(19위)와 공기 오염(18위) 분야에서는 점수가 낮았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탄소 지표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며, 18위에서 9위로 상승했고, 에너지 집약도에서 1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과제로는 폐수 처리, 공기 오염, 산림 파괴가 있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과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무역 관행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잘 상업 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올해 국가의 낮은 순위가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의 느린 시행, 덜 발달된 인프라, 높은 전기 비용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보다 재생 가능한 전력 원으로의 전환 및 시행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이 분야에서 외국인 전량 소유를 허용한 이후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23/629953/philippines-slips-in-trade-sustainability-ranking/>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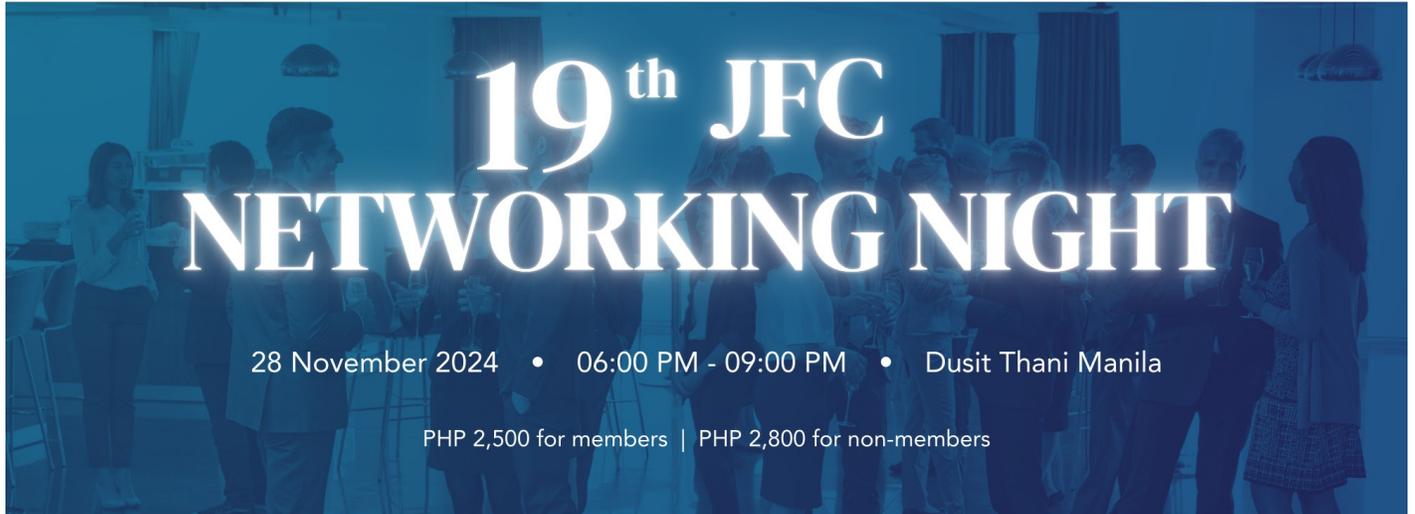
KCCCP Christmas Party 2024

NOVEMBER 18, 2024 (MONDAY) 5:30PM
 AT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KCCCP Member (1) - Free of Charge | Additional & Non-Member - Php 2,000
 R.S.V.P.: info@kcccp.ph | 09178015920 | 09158887296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AMCHAM • CANCHAM • ECCP
JCCIFI • KCCP • PAMURI



ORGANISED BY



The Joint Foreign Chambers (JFC) will be holding its 19th Annual Joint Foreign Chambers Networking Night. This will be held on Tuesday, 28 November 2024 from 6:00 pm to 9:00 pm at the Mayuree Grand Ballroom, Dusit Thani Hotel, Makati City

Back on face to face, this event is one of the highlight networking events in Manila and is crea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our respective members and honoured guests to meet and network in an informal setting.

Relationships formed at an event like this help stimulate discussion and possible business opportunities.

The JFC Networking Night attracts over 350 guests, composed of the members of the different foreign chambers, prominent figures in the business and diplomatic world, and top government officials.

The event is also open for sponsorships. For interested parties (attendees and/or sponsoring companies), kindly contact KCCP at +632-8885-7342, or mobile numbers 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or through email at info@kccp.ph.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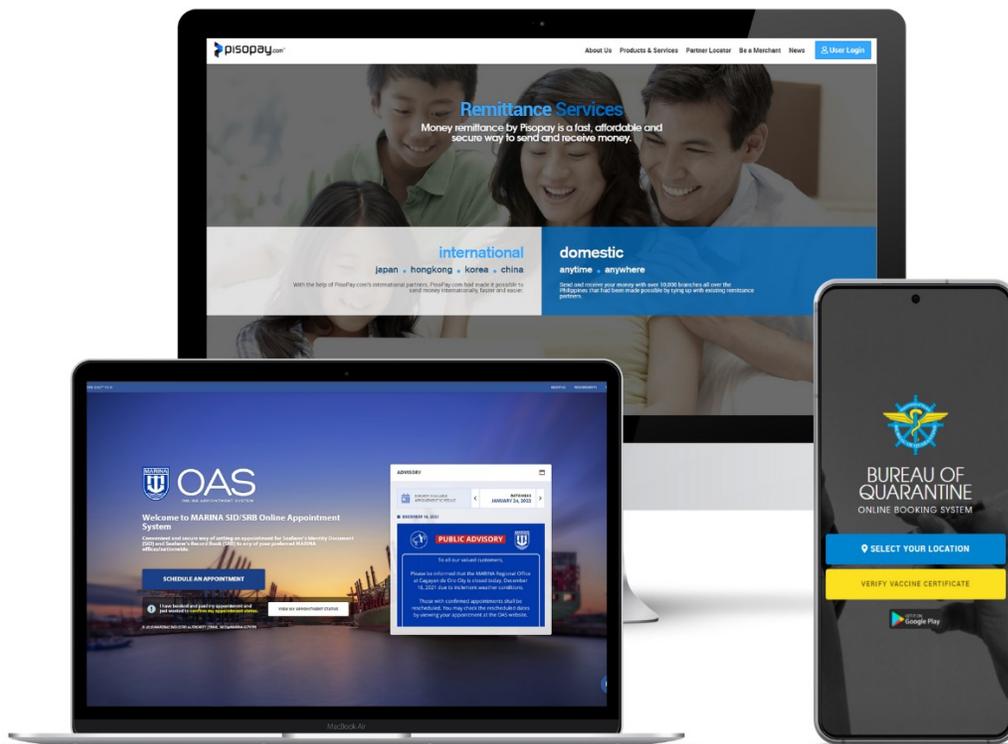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